



마음을 다한 돌봄 서비스로 세상을 더 이롭게 (재)다솜이재단



국내 최초 공동간병제도 개발

다솜이재단은 고용노동부 인증 1호 사회적기업이라는 목직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간병전문 비영리 재단이다. 재단의 전신은 1997년에 탄생한 실업극복 국민재단이었으니 따지고 보면 2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가진 관록의 단체인 셈이다. 다솜이재단은 2004년 교보생명의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구성된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으로 시작, 이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독립된 재단으로 설립됐다.

“재단 설립의 목적은 여성 가장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는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재단으로서 독립되어 운영하려면 수익 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유료 간병서비스 사업의 비중이 커졌죠.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기존의 간병서비스와는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으로 일하는 간병사 분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전략팀 안영진 팀장의 설명이다.



다솜이재단은 오랜 역사를 가진 간병전문 비영리 재단이다.

공동간병제도를 최초로 개발하여 환자들의 간병료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의 무료 간병에 발 벗고 나섰으며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그들을 만나봤다.

글 이경희·사진 장병국



다솜이재단은 국내 최초로 공동간병제도를 개발한 곳이다. 기존에는 간병사가 환자와 1대1로 24시간 일을 했다면 공동간병제도는 5~6인실 병실 전체를 4~5명의 간병사가 3교대로 일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개인 간병 대비 비용이 30% 정도 저렴하며 간병사들 역시 24시간 근무라는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재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간병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각 병원의 사회사업실을 통해 취약계층 관련 서류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재단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 대전, 대구, 광주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간병사 450여 명, 관리자급 20여 명이 불철주야 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

“저희 재단에는 10년이 넘게 근속하는 간병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두가 다솜이재단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안고 일하고 계시지요.”

자식보다 낫다

다솜이재단은 병원과 협약을 맺고 일하는 시스템이다. 재미있는 것은 환자의 보호자들도 재단의 간병사를 좋아하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역시 공동간병 간병사들에게 매우 큰 애정을 갖고 대한다는 사실이다. “재단 간병사들은 개인 간병 대비 업무의 숙련도도 훨씬 높고 경험들이 많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상호 의사 전달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 서비스는 못 하지만 전달하는 과정이나 업무 인수인계를 체계적으로 하니까 간호사들께서 상대적으로 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반가워하시는 거지요.”

안영진 팀장이 미소를 짓는다.



일 잘하는 간병사를 양성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재단의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채용할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필수이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인은 배제하는 것.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을 함께해야 하는 간병사들을 위해 소진예방교육, 스트레스 관리 강의, 꽃꽂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일까? 다솜이재단 간병사들의 간병을 받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재단의 홈페이지에는 릴레이처럼 이어지는 감사 인사로 가득하며 특히 보훈병원의 환자들이 표시하는 감사는 고마움을 넘어서 감동이다. 보훈병원의 특성상 연로한 환자들이 많은데 땀땀 힘들게 쓴 편지를 남기거나 두 손을 꼭 잡은 채 “자식보다 낫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

“저희는 규정상 정해진 간병비 외에는 별도의 돈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간병사분들이 계속 거절을 하니까 퇴원을 할 때 고생했다며 슬쩍 돈을 남기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 돈을 다시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로서는 철저히 원칙을 고수하는 거죠. 오래 간병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상황을 아니까 간식을 사 오시거나 재단에 기부함으로써 고마움을 표시해주고 계세요.”



마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다솜이재단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시대, 노인전문 케어를 위한 사업을 준비 중

올해 다솜이재단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동안 병원 위주로 간병을 해오던 것에서 탈피, 장기요양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재단은 최근에 전국 다섯 개 재가센터를 오픈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이 활동이 불편하면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파견해서 도와주는 노인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는 행보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노인전문 케어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급간병 과정을 도입해서 올해에는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사실 재가센터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오픈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재가센터가 우후죽순 많이 생겼어요. 저희는 어쨌든 비영리 재단이고 서비스 품질로 승부를 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행보를 걷고자 합니다. 기존의 요양보호사 교육 말고, 실제로 간병을 해오면서 체감한, 현장에 꼭 필요한 교육이나 현장을 겪으면서 부족했다고 느낀 부분들을 추려서 그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다솜이재단의 간병사들은 기본 2년 계약직을 거친 뒤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 재단은 간병사들을 위한 4대 보험, 연차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배상

책임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간병사들의 좀 더 나은 처우를 위한 고민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무료간병을 받는 환자들의 숫자가 연 3,000명이 넘고, 보다 저렴하게 유료간병을 받는 환자들의 숫자가 연 2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비영리 재단의 의미를 잃지 않고, 무엇보다 1호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다솜이재단이다. 이들이 있기에 세상이 더 건강하고 밝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재단 사람들의 의지가 반짝반짝 어두운 길을 환하게 밝힌다. 

